

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0. 24.(월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박영철 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 이채영 (044-200-2139)

한덕수 국무총리, 중앙아시아 외교장관 등 접견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'22.10.24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15차 한-중앙아 협력 포럼*(10.25, 부산)」 참석차 방한한 중앙아시아 외교장관 등**을 접견하고,
 - △수교 30주년을 맞은 한-중앙아 관계 △ 양자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 - * (한-중앙아 협력 포럼) 한-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·문화·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'07년 우리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
 - ** (참석) △쿨루바예프(Kulubaev)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△노로프(Norov)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△「메레도프(Meredov)」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△기타 관련 국가 주한 대사 등

- 한 총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1992년에 수교한 이래 한-중앙아 관계가 30년 동안 경제·자원·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했다.
 - 또한, 한-중앙아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「제15차 한-중앙아 협력 포럼」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고,
 - 올해는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 정주한 지 8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, 약 30만명의 우리 고려인 동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.

- 한 총리는 「제15차 한-중앙아 협력 포럼」이 열리는 아름다운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이 노력 중임을 강조하고,

- 긴밀한 한-중앙아 협력관계를 감안하여 부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며,
 - 한국은 기후변화, 지속가능발전, 포용적 발전 등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으로, 동 박람회를 통해 중앙아를 비롯한 전세계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.
- 한 총리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통신·에너지 분야 진출을 기대하고, 녹색성장·산림 등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.
- 쿨루바예프(Kulubaev) 외교장관은 관계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큰 양국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환영하고 전면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.
- 한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화학단지, 고속도로 등 우리 기업의 에너지·인프라 사업 수주가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했고,
- 노로프(Norov)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중앙아시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,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다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길 원한다고 화답했다.
- 한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라고, 우리 기업의 에너지·플랜트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,
- 메레도프(Meredov)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정유·에너지·화학·우주·교통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.
- 한-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한 총리의 중앙아시아 외교장관 등에 대한 접견은 새로운 30년을 위한 청사진을 논의하고,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양자 관계를 한차원 더 높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.